

우범기 전주시장,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정부세종청사서 기재부 간부들 만나 민선8기 공약·현안사업 정부 예산안 반영 건의

‘강한 경제’를 민선8기 전주시정 목표로 내세운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내년도 정부예산을 짜고 있는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를 두루 만나 주요 공약과 전주 발전의 필요성 설득에 나선 것이다.

우범기 시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한 기재부 간부들을 차례로 만나 민선8기 공약사업과 전주시 현안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 중 100만 통합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전주시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음식관광 창조타운 구축사업’이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피력했다.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는 정원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 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시민들의 체육복지 실



‘강한 경제’를 민선8기 전주시정 목표로 내세운 우범기 전주시장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현을 위한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지난 1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의원-전북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전주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향후 기재부와 소관 부처를 수

시로 방문해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한 전주시 동행의원 등 정치권과도 공조해 국가예산 확보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4차 심의를 진행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경제가 강해져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기재부 심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역 정치권, 전북도와 끈끈하게 공조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8월 5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2418명

전주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2418명을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전복지부가 시행하는 자립형성지원 통장사업 중 하나로, 청년이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최대 3년간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자립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200만 원이어야 한다. 단, 가구 소득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월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소득이 소액이더라도 가입 가능하다.

대상자가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온라인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융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희망자는 복지로(www.bk21.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를 하며, 3주차인 다음 달 1일부터 5일간의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 개편으로 저소득가구 청년 중심에서 중위가구 청년까지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콜센터(1522-3690),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시설공단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전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에서 ‘원데이클래스(One-day Class)’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은 안전생활체육공원 실내 인공암벽장에서 볼더링을 즐기는 이용객들 모습)

여름방학 ‘암벽등반’ 원데이클래스

전주시시설공단, 인공암벽장서 1대1 맞춤 교육 운영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전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에서 ‘원데이클래스(One-day Class)’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원데이클래스는 하루 1시간 동안 암벽등반의 기초 교육을 받고 암벽등반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1대1 맞춤 교육이 특징이다.

기초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암벽을 오르내리는 ‘암벽 체험’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또 주 2회 또는 월 8회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인공암벽과도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강습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주말 및 공

휴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다. 교육 내용은 ‘볼더링(bouldering)’으로 보조 장비 없이 자신의 팔과 다리만으로 바위에 오르는 종목이다.

안전생활체육공원에 조성된 실내 인공암벽장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높이 5m, 면적 66㎡ 규모로 방방시 설을 갖춰 무더운 여름에도 쾌적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이정주 공원운영부장은 “암벽등반은 온 가족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가족 레포츠로 체력증진뿐 아니라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다”며 “원데이클래스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좋은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빈집 정비 위한 실태조사 나선다

전주시가 도심 속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전수조사를 한다. 시는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도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2년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전거나 상수도를 쓰지 않는 빈집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빈집들이 가솔 청소년이나 노숙자 등의 거처로 이용되면서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는 보고 있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에 위탁해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최근 1년간 에너지

사용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1214호다. 실태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등급산정조사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의 빈집을 유형별로 정리한 후 안전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 빈집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빈집 플랫폼(공가방) 등에 등재돼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장기간 방치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을 체계적 정비할 기를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용역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자원봉사자 모집

전주시가 ‘제8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에서 행사장 도우미와 온라인 홍보활동 등 자원봉사자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다음 달 17일까지 1365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을 통해 모집한다.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세계적인 지역화 운동단체인 Local futures(국제생태문화협회)와 전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오는 9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와 줄 행사도우미 10명과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할 활동가 50명 등 총 60여 명의 봉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행사장 도우미는 행사 기간에 △현장등록 △행사장 안내데스크 △객석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온라인 홍보활동가는 2차에 걸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행사 홍보를 한다.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국제회의의 참여 경험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입력된다.

‘제8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는 사람·지역·먹거리·사회적경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와 관련단체·기관, 현장기업가 등이 대거 참여해 ‘지속가능한 지역화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강연과 토론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지역화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전주시가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디지털 전환과 푸드플랜 △지역금융에서 본 디지털 전환 등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워크숍도 진행된다.

김현도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장은 “전주에서 개최되는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희망을 공유하고 국제회의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의 한여름 밤을 수놓을 클래식 음악축제가 열린다.

한여름 밤 ‘클래식 음악축제’

27~30일 전주비바체실내악축제 개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의 한여름 밤을 수놓을 클래식 음악축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천주교 세계평화의전당에서 ‘제6회 전주비바체실내악축제(조제위원장 조화림)’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전주비바체실내악축제는 문화도시 전주 비바체실내악축제를 강화하고 전주시민들에게는 클래식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음악축제다.

‘Appassionato(열정)’이라는 주제의 올해 축제는 예년과는 다르게 여름(7월)과 가을(10월) 두 번에 걸쳐 관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여름축제는 오는 27일 베버·모차르트·브람스의 선율을 시작으로 30일까지 4일간 열리며, 가을축제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생상스, 슈만, 하이든, 포레, 멘델스존,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곡가 연주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축제의 특징은 ‘Rising Star’ 프로그램과 야외음악회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Rising Star’는 미래의 스타가 될 신인 연주자를 발굴하기 위해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에게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축제와 함께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며 재능 있는 영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자 노력해온 주최 측(사단법인 비바체뮤지피에스

티벌, 예코뮤직)의 설립 취지가 반영돼 올해 처음 선보이게 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10월 8일에는 장일범의 사회로 42명의 연주자와 소프라노 김혜정, 테너 김세일이 함께하는 야외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비바체실내악축제는 토마토 클래식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서울대 음악과 교수이자 비올리스트인 최은식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국내외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정통 클래식 음악회 ‘전주비바체실내악축제’는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이 개최되는 전통과 문화의 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클래식 축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축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배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해를 거듭 할수록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전주 비바체 실내악축제는 팔츠부르크 페스티벌, 탕글우드 페스티벌 같은 지역 이름을 건 세계적인 음악축제를 목표로 한다”며 “문화도시 전주를 각 지역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기후위기 대응 현장 방문

전주시에너지센터·새활용센터 찾아 시설 점검·의견 수렴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남숙)가 18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해 만들어진 전주시에너지센터와 새활용센터를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이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6월 기존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여 탄생한 에너지센터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모습으로 가치를 높이는 새활용센터를 연이어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남숙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세대가 지금 당면한 문제”라며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환경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복지환경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 개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교육·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매년 개최되었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것으로 응급처치 전반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본인 또는 주변인이 경험하거나 가상상황을 연출한 응급처치 사례 또는 생활 속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 교육영상을 제작·제출하면 된다.

오는 8월 29일까지 한국소방방송 홈페이지(https://fire.go.kr)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